

Cenazet pension!

산들리니에서 강행군으로 오느라 지린대는 지쳐있다 우리!
특히 큰 배낭 짊어지고 오느라 막걸리를 먹어야 하나
술이라 쉬기 힘들어하는 죽을 지양으로 기네르 패션에 도착
했음에!!

마마가 부삼스레 뭐라 뭐라하며 내은 수박과 포도
사원한 그 수박 맛이라니!

배낭 내뺄개치고 허겁지겁 수박과 포도를 먹었잖아
아 잊을 수 없는 그 달콤하고 시원함!

어디 외할머니 댁이라든 듯!

하루만 머무르기로 하는 쿠사다에서 우리(나와 내친구)
는 사흘을 머무르고 먹었다

다 우리에게 할머니 같은 마마 때문이다.

아직 여행의 반이상을 남긴 우리는
여기 마마에서 집이 든듯한 편안함으로

충분한 에너지를 얻고 간다

마마 혼자 된 가기가 영 마음이 ~~화차 않지안~~
편치가 않다

옛날 외할머니댁 갔다가 돌아올 때의 기분!

강게 강게 기약에 남은 것이다

마마!!

우리 할애 — !

사랑해요 ~~~~~ 😊

Rica ederim ~! Hoşça Kalın!

Buyurun